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대연평도, 백령도라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적들의 침략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정세가 날로 첨예해지고있는 속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연평도, 백령도라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실탄사격계획과 포병구분대들의 배치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포실탄사격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순차에 따라 포사격이 시작되였다.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과 함께 대기를 헤가르며 번개같이 날오는 포

탄들이 대연평도와 백령도에 도사리고있는 연평도서방어부대 본부, 괴뢰6해병려단 본부, 《하푼》발사기지, 90mm땡크포진지, 155mm자행포사포중대, 전과탐지기초소, 130mm방사포진지를 비롯하여 적대상물들로 가상한 목표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포병들이 목표들을 타격할 때마다 잘한다고, 정말 잘한다고 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쌍안경으로 서남전선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 포병들이 쏜 명중포탄들이 통쾌하게 작렬하는것을 보시며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가 제일이라고, 무도영웅방어

대의 영웅포가 역시 다르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적진과의 실지거리를 타산하여 진지를 차지한 주체포와 방사포들에서 날린 포탄들도 목표들을 정확히 때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거리포병들이 자기들이 쏜 포탄이 어떻게 목표들을 타격하는가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복수심으로 불라는 심장으로 불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적진》은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훈련에서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의 포병들이 평시에 련마해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포병들이 싸움의 날을 생각하며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고있기에 명중포성을 올릴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서남전선과 서부전선의 최전방초소들을 시찰하면서 타격대상물들에 대한 정밀타격순차와 진압밀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주었는데 오늘 진행한 실탄사격을 통하여 4군단안의 포병들은 대연평도와 백령도의 적들을 불도가니에 처넣을수 있게 준비되어있음을 검열받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포병싸움준비이자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이고

조국통일대전에서의 승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포병무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포실탄사격훈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의 포병들을 평양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격정에 겨워 《만세!》를 부르는 군인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전선시찰의 길에서 자신과 친숙해진 군인들이라고, 옥류관에서 식사를 꼭 시켜 보내라고 지휘성원들에게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서부전선 최대열점지역의 전초기지인 월내도방어대와 조선인민군 제641군부대관하 장거리포병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적들의 광란적인 침략전쟁소동이 최절정으로 치달고있는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때인 3월 11일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백령도라격에 바라보이는 서부전선 최대열점지역의 전초기지인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이른아침 작은 발동선을 타시고 날바다를 헤치시며 방어대에 도착하시자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은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머니들의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구르는 섬방어대 어린이들을 한명한명 따듯이 품어주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랜 시간 방어대의 오솔길을 걸으시며 섬의 지형지물과 화력기재들의 배치상태, 군인들의 생활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어 방어대장으로부터 적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는 백령도에 도사리고있는 남조선괴뢰6해병려단의 배치상태와 대상물들을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적들이 기도하고있는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부대가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방어대지휘관들과 동행한 제4군단 포병지휘성원들에게 괴뢰6해병려단의 전과탐지기초소들과 포발견탐지기들, 《하푼》발사기지와 130mm방사포, 155mm자행포사포중대들을 비롯한 적대상물들을 소멸하기 위한 타

격순차와 진압밀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주시였다.

또한 적합선들이 군사분계선 해상수역에 접근할 때에는 위압적인 경고사격을, 침범할 때에는 강력한 조준격과사격을 가할데 대한 새로운 해상작전규정을 비준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서남전선의 최전방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시찰하는것은 전투준비상태를 정확히 료해하고 타격대상물들에 대한 정밀타격순차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숙담에 불을 좋아하는 놈 불에 타죽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불에 타죽으려고 찍하면 에민한 열점지역에서 불장난질을 해대고 있는 적들을 자신께서 명령만 내리면 모조리 불도가니에 쓸어넣으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재 우리의 화력밀도가 대단히 높다, 백령도의 적대상물들을 3중4중으로 타격할수 있다, 백령도를 불바다로 만들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싸움의 날 불바다에 잠기고 처참하게 짓이겨지는 적진을 방어대장이 직접 사진을 찍어 최고사령부에 전송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면서도 당부하였지만 월내도방어대의 포병들도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내리면 조국통일대전의 첫 포성, 신호탄을 쏘아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면대결준비를 철저히 갖추데 대한 최고사령부의 의도대로 감시소를 비롯한 전투진지들을 잘 꾸렸다고, 모든것이 만족하다고 하시

면서 이 섬방어대는 백점, 만점짜리 부대, 방어기지로부터 타격기지로 전환된 부대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방어대를 난공불락의 요새, 불침의 전함으로 만든 방어대와 정치지도원에게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현지에서 직접 한등급의 높은 군사칭호를 수여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군무를 수행하는 초급병사 김광철과 방어대지휘관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병실, 교양실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방어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인들과 군인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방어대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시였다.

공연무대에는 설화와 합창 《그리움은 끝이 없네》, 합창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3중창 《내가 지켜선 조국》, 합창 《해안포병의 노래》, 기악과 노래 《중대생활 좋다》, 중창과 합창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을 병사들은 노래하네》, 4중창 《불라는 소원》, 시와 합창 《백두산총대는 대답하리라》, 《경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종목들이 울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연을 정말 잘하였다고, 모두 노래를 잘한다고, 이것이 바로 선군문화의 본보기라고, 바늘들어갈 틈도 없다고 하시면서 방어대는 정치사상교양사업도 당의 의도에 맞게 잘하고있다고 치하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3월 11일 침략도발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 백령도의 적들을 타격소멸할 화력임무를 맡고있는 조선인민군 제641군부대의 싸움준비상태를 검열하시기 위하여 군부대관하 장거리포병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최전방에 위치한 구분대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터쳐올리는 군인들은 혁명의 최전방에 최고사령부를 두시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해주시는 백두의 천출명장을 뜨거운 격정속에 맞이하였다.

원수님께서서는 격정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는 군인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며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구분대의 군인들이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휘관들로부터 구분대의 전투준비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가 최고사령부의 작전전술적기조에 맞게 전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있으며 타격할 적대상물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사격명령을 기다리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구분대가 장비한 주체포들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백령도의 적들이 움푹하기만 하면 괴뢰6해병려단 본부와 관하해병대대들을 무자비한 화력타격으로 초도화할데 대한 임무를 수립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구분대군인들

의 화력복무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사격준비시간을 판정하시였다.

포병들의 훈련모습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들이 이제 당장이라도 포탄을 날릴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포병싸움준비이자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이라고 하시면서 군부대의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이곳 포병부대를 중시하신다고 하시면서 적들이 무분별하게 날뛴다면 상상할수 없는 위력한 타격으로 정의의 불벼락을 들뜨워 침략의 무리들이 다시는 살아날뉘지 못하게 모조리 짓밟아버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구분대관하 중대의 교양실, 침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서부전선지구에 위치한 군부대들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목숨바쳐 사수하기 위해 모든 작전지역들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다시금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적들의 무모한 침략도발광판에 의해 서부전선지구는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최대열점지대라고 하시면서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조건에 맞게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있다가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조국의 바다에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원수의 머리에 강력한 보복타격을 안기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조선인민군 제531군부대에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531군부대에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탁월한 군사전략전술사상과 백전백승의 지략, 탁월한 령군술을 지니시고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자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였다.

공연무대에는 설화와 합창 《조선의 힘》, 대화시 《명장과 포병》, 녀성5중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선동곡 《안아오자 더 큰 콩대풍을》, 녀성

독창과 방창 《당을 노래하노라》, 국제단 《인민군대 그 이름 빛내가자》, 기악과 노래편곡 《해안포병의 노래》, 《전사의 노래》, 《병사들아 영웅이 되자》, 시이야기 《남해가 앞에 있다》, 합창 《천만이 총폭탄되리라》의 종목들이 울렸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관람자들과 출연자들의 《만세!》의 환호성으로 하여 장내는 대하마냥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터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하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531군부대에 예술선전대의 예술인들이 자나깨나 싸움만을 생각하고 적들과의 대결전에서 언제나 백승만을 떨칠 우리 인민군대의 높은 사상정신적품도와 전투적기상을 담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예술선전대의

공연은 오늘의 준엄한 정세를 잘 반영한 공연, 사상적대가 뚜렷하고 바늘들어갈 틈이 없는 공연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531군부대에 예술선전대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으로 부대장병들을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